

 금융감독원	보도자료	금융은 투투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			
보도	2023.12.26.(화) 조간	배포			
담당부서	상품심사판매분석국 금융상품총괄팀	책임자 담당자	팀장 조사역	이창규 오윤경	02-3145-8228 02-3145-8235
[금융꿀팁 200선] <148>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					

- 최근 美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美 장기채·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*하였습니다.

* '23년 1~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美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(약 11억달러)를 기록(예탁결제원 세이브로(SEIBro))

- 그러나,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
-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며,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*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.

- * 국내 상장 레버리지(± 2 배) ETF·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①기본예탁금 1,000만원, ②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(1회, 1시간)의 진입규제가 존재
- 또한, 해외 ETF는 국내와 투자환경이 상이한 점이 있어,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을 148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

- ①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美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(특히 레버리지 ETF)에 투자 시,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② 해외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- ③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하세요!
- ④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두세요!
- ⑤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- ⑥ 해외 상장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,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꿀팁 1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美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(특히 레버리지 ETF)에 투자 시,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-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,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
 -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.
- 향후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 - 또한,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,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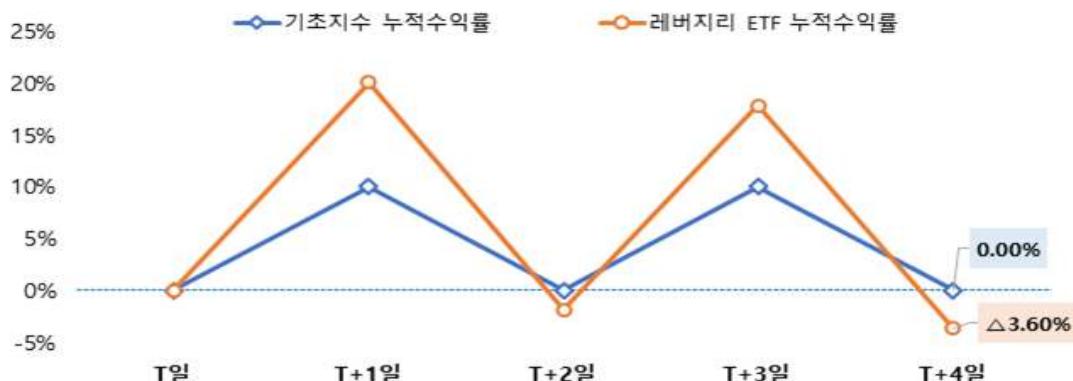
꿀팁 2 해외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
- 레버리지·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.
 - 예를 들어, 1,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+ 1일에 10% 상승하여 1,100이 되었을 때, 2배 레버리지 ETF는 10%의 2배인 20%가 상승하여 1,200이 됩니다.

- 이후, T+ 2일에 기초지수가 1,100에서 9.09% 하락하여 1,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.09%의 2배인 18.18%만큼 하락하게 되고,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합니다.
-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T+ 4일에는 3.60%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.

예시)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

투자 일수	기초지수 가격	기초지수 일간수익률	기초지수 누적수익률	레버리지 ETF 일간수익률(+2배)	레버지리 ETF 누적수익률	레버리지 ETF 기준가격
T일	1,000					1,000.00
T+1일	1,100	10.00%	10.00%	20.00%	20.00%	1,200.00
T+2일	1,000	△9.09%	0.00%	△18.18%	△1.82%	981.82
T+3일	1,100	10.00%	10.00%	20.00%	17.82%	1,178.18
T+4일	1,000	△9.09%	0.00%	△18.18%	△3.60%	963.97



- 이에 레버지리·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,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.

꿀팁 3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하세요!

-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습니다.

- 예를 들어,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\$30에 매수 (환율 : \$1 = 1,200원)하여 며칠 후, 주가가 상승하여 매수하였던 10주를 1주당 \$32에 매도(환율 : \$1 = 1,100원)하였다고 한다면,
 -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손익은 24,000원이지만,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 -8,000원이 됩니다.

구분	환율	매매대금	매매손익(A)	환손익(B)	최종손익(A+B)
매수	₩1,200/\$1	₩360,000	(+)₩24,000	(-)₩32,000	(-)₩8,000
매도	₩1,100/\$1	₩352,000			

주) 증권거래세 미고려

-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(원화 상승)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,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.

꿀팁 4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두세요!

-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.4%(지방세 포함)를 부과하며,
 -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
 - 한편,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부과하지만,

-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.4%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.

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

구 분	해외 상장 ETF	국내 상장 해외 ETF
증권거래세	국가별 상이	없음
분배금(배당소득세)	배당소득세 15.4% (원천징수)	배당소득세 15.4% (원천징수)
매매차익(양도소득세)	양도소득세 22% (연 250만원 기본 공제)	배당소득세 15.4% (원천징수)
금융소득 종합과세	분배금만 포함	분배금+매매차익

- *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양도세를 부과
- 따라서,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잘 이해하고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.

꿀팁 5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-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(주당순자산가치, NAV) 대비 상하 30%로 제한하고 있으며,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.(2배 레버리지 ETF : ±60%)
- 하지만,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,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
꿀팁 6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,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미국 시장의 경우,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 - 이때,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 - 그러나,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,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종목의 상장폐지, 액면 분할·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, 병합·분할 등의 효력 발생일,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